'칠레 프리미엄 전 세계 판매 1위'

# 마르께스 데 까사 콘차 시라

Marques De Casa Concha Syrah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지역 | 칠레 〉 센트럴 밸리 〉 마이포 밸리 | | |
| 포도품종 | 시라 100% | | |
| 알코올 | 14.8% | 용량 | 750ml |
| 시음 적정 온도 | 10-13℃ | | |
| 테이스팅 노트 | 어두운 보라빛이 감도는 레드 컬러로 체리, 블랙베리와 같은 검은 과일의 향 오크 숙성을 통해 얻어진 타르 향신료의 향 등이 감돈다. 다시 한번 달콤한 과일향을 느낄 수 있으며 파워풀하면서도 라운드한 탄닌이 마지막까지 기분 좋은 와인이다. | | |

당도 (DRY – SWEET): **1** 2 3 4 5

바디 (LIGHT – FULL): **1** **2** **3** **4** **5**

**제품설명**

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, 클래식한 프리미엄 와인의 정석' 마르께스 데 까사콘차 와인은 1718년, 당시 스페인 국왕인 펠리프 5세가 콘차이토로 가문에게 수여한 작위명으로 콘차이토로의 유구한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그들의 유산을 상징하기 위해 만들어진 브랜드이다. 1972 빈티지의 마르께스 데 까사콘차 까베르네 소비뇽을 런칭하면서 싱글빈야드의 개념을 도입하였고, 저가 대중적 와인산지로 여겼던 칠레 떼루아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였다. 마르께스 데 까사콘차는 칠레 건국 200주년 기념식에서 건배주로 사용된 바 있으며, 2012년 '서울 핵안보 정상회의'의 공식 리셉션주로 선정되면서 클래식한 선물와인이자, '대통령의 와인'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다. 영국의 와인 전문지 IWSR의 전 세계 와인 판매 데이터 기준 칠레 프리미엄 판매 1위 브랜드이다.

**수상내역**

2020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2점
2018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3점
2017빈티지 인터내셔날 와인 챌린지 IWC Silver

※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,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※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